

행사안내 9월 6일(금) - 9월 7일(토)

구분	9월 6일(금)	9월 7일(토)
	서시천 체육공원 특설무대	
19:00	식전공연 / 구례의 소리 I (19:00~19:30)	식전공연 / 구례의 소리 II (19:00~19:30)
19:30		
19:45	개막제 (19:30~20:40)	
20:00	천년의 노래 1 <여순10·19 구려사간> 천년의 노래 2 <동편제의 흐름과 맥> 우리의 노래 <자연의 길, 사람의 길>	산의소리 [영인명창전] & 강의소리 [젊은국악] (19:30~21:00)
20:15		
20:30		
20:45	특별초청공연 (20:40~21:00)	
21:00	경품추첨 (21:00~)	

※ 농·특산물 판매, 푸드트럭 운영

1일차 9.6.(금)

개막제 (19:00~21:00)

사회: 김봉원

구분	시간	출연자
구례의 소리 I	19:00~19:30 (30)	김지희·김재하·박자수 유승자 부포농음(단고, 소고농음)
개막제	19:30~20:40 (70)	천년의 노래 1 <여순10·19 구려사간> - 여왕가곡 선영숙, 박현드, 소리 장미현, 우원 안영기 음악연구소 남성4중창 천년의 노래 2 <동편제의 흐름과 맥> - 박현드, 윤진영, 장미현, 고수 윤정원 - 윤진영 명창 [작곡가 중 군사실용] - 장미현 명창 [흥보가 중 '부는 내목'] 우리의 노래 <자연의 길, 사람의 길> - 박현드 창작곡 [자연의 길, 사람의 길 구례]
특별초청공연	20:40~21:00 (20)	국악 신동 마스트롯 강태원 특별 공연

2일차 9.7.(토)

젊은국악인&영인명창전 (19:00~21:00)

사회: 강길원

구분	시간	출연자
구례의 소리 II	19:00~19:30 (30)	강나루 명창 (2023년 6월 10일 관서고교 2학년 1학년 1학년 수상) 박정선 명창 (구례 성서고교 2학년 1학년 1학년 수상)
	19:30~19:45 (15)	영인명창 I - 강길원 명창, 고수 김태영
	19:45~20:10 (25)	젊은국악인 I (국악과 영인 연합 편성 악단) - 송기동 [고구려의 혼], [관농음], [산뜻놀이]
산의소리 [영인명창전] & 강의소리 [젊은국악]	20:10~20:35 (25)	영인명창 II - 강길원 명창, 고수 김태영 영인명창 합동 공연 "사자지정 師弟之情" - 강길원 명창 & 강길원 명창
	20:35~21:00 (25)	젊은국악인 II (한소리 및 한국 전통악기 연주, 다양한 세계 음악을 결합한 편성) - 국자소 (국악재즈 신시앙) [월산가], [청아 아리랑], [나그네] 젊은국악인 합동 공연 "산뜻놀이" - 송기동, 국자소

2024 동편소리축제 경품대잔치

- ▶ 일시 | 2024. 9. 6.(금) 19:00 ~
- ▶ 장소 | 서시천 체육공원 특설무대
- ▶ 경품 | 대형 TV, 쿠키압력밥솥, 전자레인지, 선풍기, 믹서기, 우리밀선물세트 등 100개

교통안내

- ▶ 서울 열차 | 용산역에서 열차를 이용 구례구역을 거쳐
- 버스 | 남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 구례에서 하차 선별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 구례에서 하차
- 승용차 | 경부, 중앙고속도로와 순천만주교도로를 이용
- ▶ 부산 버스 |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 구례에서 하차
- 승용차 | 남해고속도로 이용, 하동에서 구례가는 국도 이용
- ▶ 광주 버스 | 양산에서(광주광역시) 또는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장 이용(국성광주)
- 승용차 | 호남고속도로 이용, 곡성 또는 석곡 분기점에서 국도 이용
- ▶ 대구 승용차 | 대구에서 남양양으로 구례 도착
- 버스 |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구례터미널 도착

지리산 자락을 담은... 동편제 [東便制]

동편제란

전라도 동쪽 산간지역과 경상도 서남지역에 전승되어 오던 소리제를 가리킨다. 동편제는 서편제와 함께 판소리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파의 구분은 판소리가 분화 발달되어 오면서 지역에 따라 사실이나 음악, 성음 및 발성법에 따라 특성을 달리하여 전승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동편제소리의 특징

호방하고 남성적인 분위기의 우조 선율(양악의 장조에 비유됨)을 많이 쓴다. 따라서 짙은 색의 소리를 '우조'로 우거내는 소리를 구사하며 소리에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잔가락을 적게 붙이며 매 구절의 끝마침을 명확히 한다. 장단을 붙이는 방법으로는 한 장단 안에서 사실과 장단이 딱 맞아 떨어지는 '대마디 대장단'을 많이 사용한다. 구례 출신 동편제의 명창으로는 송우룡, 송만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 선생을 들 수 있다.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

보통 판소리의 가왕(歌王)으로 불렸던 송흥록 가문의 송만갑으로 이어져 내린 남성적(男性的)인 소리를 '동편제(東便制)', 강산 박유전, 정정렬, 박동실로 이어지는 여성적(女性的)인 소리를 '서편제(西便制)'라고 부른다. 동편제가 지리산을 상징하듯 뱃속에서 우러나는 쉼쉼한 가락인 '우조(羽調)'에 담백 웅장하며, 웅장한 호령조와 통성으로 우거내는 소리, 한 장단 안에 가사와 소리가 맞아떨어지는 '대마디 대장단'의 창법을 구사하는 것이라면, 서편제는 애절하고 슬픈 가락인 '계면조(界面調)'에 발성과 기교를 중시하여 부드럽고, 뒤를 길게 끌면서 세련된 '엇부침 장단'을 구사하는 창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장면을 부를 때 서편제는 울며불며 목을 떨어 부르는데 반해 동편제는 도끼로 장작때듯 헛헛하고 통성으로 내지르는 것이다. 동편제 창법과는 적벽가, 서편제 창법과는 심청가가 잘 어울린다.

2024 동편소리축제

천년의 노래, 우리의 노래

2024. 9. 6.(금) - 9. 7.(토)
구례 서시천 체육공원